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어요!



나레이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이 널리 퍼져가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기쁜 소식을 멋지게 전해주셨어요.

사람 1

고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 제 몸과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다 치료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사람 2

이봐 스데반!! 당장 그만두지 못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불법을 행하는 거라구~

스데반

내가 어떤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소?

사람 2

우리는 네가 모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설교하는 걸 다 들었던 말이야!

사람 3

모세를 부정했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했어? 아니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만!

스데반

분명히 말씀드리겠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소. 모두 당신들이 꾸며낸 말 아니요?

사람 2

뭐라구? 이 양반 말이 안 통하네~ 재판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사람 3

이보시오 형제들!!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성전을 더럽혔으니 이 사람을 당장 재판장으로 끌고 갑시다.

사람 4

아니 무슨 일이지? 저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도 잘못되었고,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했다던데요?

사람 5

설마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그랬을라고...

사람 6

그래도 사람은 모르는거야... 아니 뭐 재판장에서 판결을 잘 내려주겠지 지켜보자고...

대제사장

자 다음은 누군가? 스데반? 들어오라 해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도 헐고, 또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뜯어 고칠거라 말했는가?

사람 1

저 사람이 모세와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걸 제가 직접 들었단니까요. 아니 한번이면 말을 안해 내가 진짜, 몇번이나 들었단니까요 진짜!

스데반

여기 계신 부모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 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레이션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말씀을 설명해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조목 조목 증거했어요. 사람들은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빨려들어가고 있었어요.

사람1

오아~ 말씀이 맞네... 듣자하니 저 스데반이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람2

아 이봐 정신 차리라구!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넘어가면 안돼~



스데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때리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당신들은 예언자가 말씀하신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낸 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단 말이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 뜻을 모르는 것이오?

대제사장 뭐야? 감히 우리를 욕하고 하나님의 율법까지 모욕하는거야? 저 죄인 스데반을 당장 사형시키시오~ 율법 제 %조 &항에 따라 죄인 스데반은 사형에 처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 지금부터 모두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지시오~~

사람들 저 하나님을 무시한 악독한 죄인 스데반은 없어져야 하오~ 이 더러운 놈아, 하나님과 성전을 부정했으니 죽어라~ 죽어라!

스데반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람 1 아니 자네 방금 들었나? 저 스데반이 죽으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사람 2 들었네.. 거 참 저 사람 엄청 아플텐데... 근데 죽을 때 표정이 어찌 저리도 평안할 수 있는지...

사람 3 아니... 그렇게 말이야. 설마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